



러시아 냉동명태 직거래 사업 ‘암초’

고성군수협 “손실 많다” 3차 수입 포기 … 고성군 “죽왕수협 통해 계속 추진”

고성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 냉동명태 직거래를 통한 ‘고성태’ 브랜드화 사업이 3차분 수입을 앞두고, 그동안 수입 물량의 70%를 사들였던 고성군수협의 사업 포기 결정으로 암초에 걸렸다.

고성군수협은 지난달 10일 열린 이사회에서 고성군이 2차분 수입 때 발생한 적자를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 러시아 냉동명태 수입 사업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고성군수협은 2차분 수입으로 수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대로 계속 추진할 경우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커질 우려가 있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성군수협은 이에 앞서 2월말 실시된 수협중앙회 감사에서 러시아 냉동명태 수입과 관련 고성군과 정식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고성군수협은 특히 당초 고성군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대책

을 마련해주겠다고 했으나, 막상 문제가 되자 그런 적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고성군수협 관계자는 “2차 수입 때 우리 수협장은 손실을 우려해 서명도 안했으며, 죽왕수협장이 일괄 서명을 해서 들어온 것”이라며 “고성군의 무언의 압력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은 결과, 손실이 발생했는데 군에서 모르겠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느냐”고 따졌다.

고성군수협은 고성군과 정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냉동비, 하역비, 운송료 등에 대한 지원약속 등을 받아낸 뒤 재추진하라는 게 이사회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냉동명태 수입량의 70%를 사들였던 고성군수협이 이처럼 돌연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자 고성군은 일단 죽왕수협을 통해 3차분 수입량 모두를 들여오기로 하고, 죽왕수협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죽왕수협 관계자는 지난달 31

일 “3차분 물량은 포란테인데다 크기도 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받기로 했다”며 “아직 몇톤이 될 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500톤 가량은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고성군수협의 손실 보전 요구에 대해 “1차 때는 이득이 있었고, 2차 때 다소 손실이 있었다고 해서 이를 보전해 달라고 하면 앞으로도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군에서 계속 보전해줘야 한다”며 “실제 사업을 하는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손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수협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우리 수협이 마치 법정관리를 받고 있어서 러시아 명태수입을 포기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수협이 봉사단체가 아니라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한 것뿐이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알림

본지 한국ABC협회 정회원 가입

본지는 지난달 29일 한국ABC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ABC란 Audit Bureau of Circulations의 약자로 우리말로 풀이하면 매체량 공개조사기구 제도입니다. 신문판매부수공사 제도라고도 합니다.

한국ABC협회는 신문이나 잡지 등의 매체가 자진 보고한 간행물 발행부수, 접촉지수를 토대로 객



부수공사기구
한국ABC가입

관적인 방법과 기준을 통해서 이를 조사해 결과를 공개합니다.

주식회사 고성신문

수능 1·2등급 비율 증가

고성지역 고교, 2011학년도 대입수능 분석 결과

지난해 실시한 2011학년도 대입 수능능력시험 분석 결과 고성지역 고등학교의 수능 1·2등급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교육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달 30일 2011학년도 대입수능을 치른 전국 일반계고 재학생 45만944명의 성적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고성지역은 전년도에 비해 수능 1·2등급 비율이 증가한 상위 30개 시·군 가운데

언어능력 증가 22위를 기록했다. 증가폭은 2.5%였다.

이런 결과는 학생들의 노력과 교사들의 열정,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관심이 증가한다면 학

업성적이 점차 향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 강남 등지에서 30여년간 교편을 잡다 고향에 정착해 살고 있는 남숙희씨(65세)는 “이번 발표결과를 접하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수리와 외국어의 등급 상향도 충분히 가능해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언어야 무럭무럭 자라서 돌아와다오”

최북단 명파초 어린이들 명파천에 어린언어 방류

고성군 현내면 소재 명파초등학교(교장 전현철)는 지난달 28일 학교 인근에 있는 명파천에서 어린언어 방류행사를 실시했다.

고성군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명파초교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 양양언어연구소에서 키운 어린 언어를 방류했다.

행사에 참가한 이현준 어린이(2학년)는 “오늘 보낸 어린언어가 내가 6학년이 될 때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에 부풀어 말했다.



명파초등학교는 지난달 28일 명파천에서 어린언어 방류행사를 실시했다.

어린언어 방류행사가 끝난 뒤 전현철 명파초교 교장은 “오늘 어린언어를 보낸 명파천에 언어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이 명파천을 깨끗하게 청소하자”고 당부했다. 박선에 시민기자

영동OA사무기

디지털복사기 소모품판매
잉크젯 · 레이저 프린터 팩스
복합기렌탈 LCD프로젝터

681-7607, 010-3179-7607